

2020년 제4차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표석분과 (速記録)

- 주관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 일시 : 2020. 11. 19.(목) 10:05 ~ 12:15
- 장소 : 서소문청사 1동 2층 회의실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61길 10, 센터프라자 808호

Tel) 02-537-0889 Fax) 02-738-0123

2020년 제4차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표석분과)

- ◆ 일시 : 2020. 11. 19.(목) 10:05 ~ 12:15
- ◆ 장소 : 서울시 서소문청사 1동 4층 회의실
- ◆ 참석자 : 표석분과 위원 6인

- ◆ 보고안건 (총 2건)
【표석 문안 수정 보고】
 - <평창 터>
 - <사도시 터>

- ◆ 심의안건 (총 12건)
【표석 정비 재심의】
 - <박세채 정승 살던 곳>【표석 정비 심의】
 - <동빙고 터>
 - <사한단 터>
 - <두뭇개나루터>
 - <입석포 터>
 - <서활인서 터>
 - <동활인서 터>
 - <인명월 터>
 - <둔촌 이집 선생 집 터>
 - <삼전 나루터>
 - <방학호진 터>
 - <여기소 터>

(개회)

○ 000 위원장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20/K1119/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2/53



시작하겠습니다.

○ 000 주무관

오늘은 보고안건 2건하고 박세채 정승 살던 곳 재심의하고 나머지 표석 심의가 있는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위치 관련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몇 개 있고 현실적으로 조금 힘든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보시면서 오늘 결정이 안 되면 다음번에 또 얘기하시고 제가 추이를 보면서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표석 문안 수정 보고

□ <평창 터>, <사도시 터>

○ 000 주무관

첫 번째, 평창 터, 사도시 터를 000 위원님과 000 위원님이 봐주셔서 정해졌고 회람했는데 이견이 없어서 이대로 진행할까 합니다. 괜찮을까요?

○ 위원 전원

예.

○ 000 위원

사도시 터에서 연도표기가 앞의 평창 터는 서기 표기 다음에 왕력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반대로 되어 있어서 바뀌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 000 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1392(태조1년)'으로 표시하고 '1882(고종19년)'으로 바꾸겠습니다.

■ 표석 정비 재심의

□ <박세채 정승 살던 곳>

○ 000 주무관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박세채 정승 살던 곳인데 지난번에 ‘박세채 집터’로 바꾸고 소동루라고만 하기는 조금 그래서 박세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문안에 여기가 소동루 정자가 있던 곳이다. 이렇게 소략하게 하자고 말씀을 하셔서 수정했고 위치 검증을 했는데요. 한 번 봐주십시오. 위치는 동명연혁고에 현석동 77 번지에 예전에 박세채가 살았던 소동루가 남아있다는 기록을 근거로 해서 거기를 찾아봤을 때 뒤쪽 5페이지에 나오는 이 위치가 되고 있거든요.

○ 000 위원장

문안 예시에서 ‘숙종 때 우의정, 좌의정을 지낸 유학자’라고 했는데 우의정은 빼도 되지 않겠어요? 좌의정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 000 주무관

예. 그러면 일단 문안 먼저 봐주십시오.

○ 000 위원

그냥 두 개를 합쳐서 ‘정승을 지낸’ 이 정도면 안 될까요?

○ 000 위원장

문안 바꾸면 표석 자체를 다 바꿔야 하는데요.

○ 000 주무관

여기 바탕 돌은 두고요. 이 앞에 그것만 요즘에 스테인레스 판으로 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 000 위원장

예. 그럼 문안 고쳐도 되겠네요.

○ 000 위원

표지석 이름이 ‘정승 살던 곳’이라고 해놨네요. 그래서 그것을 구체화시킨 게 ‘우의정, 좌의정’이지요.

○ 000 주무관

예. ‘박세채 집터’로 만약 바뀌게 되면 그렇게 할 겁니다. 기존 표지석에



서 결정적으로 ‘그의 아호인 현석을 따서 동명이 유래되었다.’ 이 부분이 틀린 부분이었기 때문에 수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 000 위원장

표석 문안 예시에 있는 것처럼 ‘박세채 정승 살던 곳’이라는 제목 자체도 ‘박세채 집터’로 바꾸고요. ‘우의정’만 빼면 괜찮잖아요. ‘우의정, 좌의정’ 두 개를 다 둘 필요는 없고요.

○ 000 주무관

정승으로 바꾸나요?

○ 000 위원장

최고 높은 관직이 좌의정이면 좌의정 하나만 넣으면 되잖아요.

○ 000 주무관

그러면 ‘좌의정을 지낸 유학자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 000 위원

그런데 문제는 동명연혁고가 아주 오래된 문헌이 아닌 게 문제거든요. 동명연혁고 77번지에 소동루가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내주신 지적도와 지금 지도를 mapping을 해본 게 5페이지에 있는 지도예요. 그런데 5페이지 위쪽의 지도를 보면 이게 아주 되게 좁은 골목길 안에 있는 필지인 거죠. 그러니까 정자가 놓일 정도의 느낌은 아닌데 그 당시를 제가 모르는 상황이어서 당시의 지적을 그려놓은 상태만으로 보자면 일반적인 정자의 위치는 아닌 것처럼 보여서 여기가 명확한지 아닌지가 의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 000 위원

그나마 문헌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부정할 근거도 또 없고요.

○ 000 위원

예. 그런데 동명연혁고는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



○ 000 위원

아마 그때까지는 건물이 있었던 거죠.

○ 000 위원장

이 당시 이것을 쓸 정도면 현장조사를 다 하셨을 거예요. 주민들 얘기도 듣고.

○ 000 주무관

위치를 옮기게 된다면 6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보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밤섬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앞에서 오른쪽으로 가는데요. 그 오른쪽 밑에 실제로 107동 앞쪽은 추정위치라고 아파트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안쪽에 설치하는 것은 조금 무리일 것 같아서 바깥쪽인 남북이 표시되어 있는 도로변상으로 옮겨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위치 이전하는 것에 동의하시면 이 부분 중에서 옮길 만한 곳을 현장조사를 하고 마포구와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 000 위원

그런데 옮겨도 기록에는 000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내용은 부기를 해두는 것이 좋아요, 옮기는 것과 별도로. 그래야 나중에 질문이 들어와도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 000 주무관

그러면 이 근거를 동명연혁고에 근거해서 했다는 것을 밝혀 줘야 하는 건가요?

○ 000 위원

사료야 어차피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도 어차피 확실치 않다는 것을 알리자는 거죠.

○ 000 위원

그런데 이 위치가 아파트 안의 길인데 안쪽으로 넣는 게 아예 힘들다는 소리인가요?



○ 000 주무관

안쪽은 사유지가 될 거잖아요. 바깥쪽은 사유지나 공유지가 될 텐데 안쪽으로 설치를 할 수 있으면 가능하긴 하는데 아파트 사람들이 통행제한 등으로 싫어하는 게 있을 수 있어서요.

○ 000 위원

다른 것에 비해서 그렇게 먼 것은 아파트 입구에 세워도 문제가 안 될 것 같기는 한데요.

○ 000 주무관

소유지는 잘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진행하는 동안 후손이라는 분 연락이 한 번 왔어요. 박세채 정승 표지판에 있는 한자에 오류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드린 자료에는 맞게 표시되어 있는데 현장에 잘못된 게 있어서요. 그런데 저희가 조사했던 결과를 보여드리고 이렇게 진행한다고 했더니 본인께서 연보 등을 다 찾아봤는데 소동루라는 것은 못 들어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동명연혁고를 바탕으로 했다고 했는데 동명연혁고에 보면 현석동이라고 하는 이름이 박세채 정승의 이름을 따서 되었다는 내용도 있고 이설로도 '검은 돌'이라고 두 가지가 나와 있대요. 그래서 조금 논란의 소지는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었습시다. 일단 위치는 저희가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바뀌는 장소로 문안도 바뀐 것으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 000 위원장

000 위원님 얘기는 그냥 놔둬도 되겠다는 얘기인가요?

○ 000 위원

여기 있는 표석이 아파트 입구에 있는 거죠?

○ 000 주무관

네.

○ 000 위원



이 자리랑 크게 차이가 안 나니까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 000 위원장

사진 보니까 추정 위치가 아파트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 000 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서 한 필지 정도 차이가 나기는 하는 상황이지만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면 또 개인 사유지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상황으로 보면 조금 더 북쪽으로 옮겨서 놓으면 좋는데 그러면 또 아파트 입구와는 멀어지니까 사람들이 인지하기에는 아파트 입구 쪽이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 000 주무관

현재 설치된 위치는 여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서요. 여기가 밑에 있는 사진의 왼쪽이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안쪽 이쪽이에요. 그래서 거리가 조금 차이는 납니다.

○ 000 위원장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 000 주무관

100여 미터 정도 차이가 납니다.

○ 000 위원

지금 원래 위치는 왼쪽이거든요. 그게 아파트 입구인데 아파트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입구길 있잖아요. 그쪽에 설치하면 어떨까 싶어요.

○ 000 주무관

그러면 추정·제안 위치와 크게 멀지 않으니 이쪽으로 해서 알아보고 상황을 파악해서 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000 위원장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지나가는 주민들이 금방 알아볼 수 있는 위치로 잘 조정해서 정하면 좋겠습니다.

○ 000 위원

그런데 주민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자기네 사는 곳이 정승 터니까요.

○ 000 위원

원위치가 크게 문제는 안 되는 위치거든요. 거기가 아파트를 가리거나 하는 게 아니고 약간 화단 같은 곳이라서요.

○ 000 위원

그런데 대중성은 좀 떨어지잖아요.

○ 000 주무관

그러면 위치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문제가 생기면 다음번에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 표석 정비 심의

□ <동빙고 터>, <사한단 터>

○ 000 주무관

그다음 동빙고 터하고 사한단 터인데요. 7페이지에 있는 그림처럼 같은 곳에 있습니다. 현재 같은 곳에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설치가 되어 있는데 동빙고 터는 문안을 조금 바꾸자는 것도 있고 둘 다 위치가 달맞이봉 공원 기슭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동빙고 터 문안 바꾸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다음 사항 진행하겠습니다.

○ 000 위원장

연대표기도 서기표기가 앞으로 가는 것으로 바뀌야 할 것 같고요.

○ 000 주무관

예.



○ 000 위원

‘종묘, 사직의 제사 때 쓰던’ 이게 너무 한정되어 있거든요. 사실 자료들을 보면 종묘, 사직 외에도 경복궁이나 문소전 등 다른 전각에서 제사를 지낼 때도 거기에 얼음을 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딱 ‘종묘, 사직의 제사 때’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 000 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다 나열할 수는 없잖아요.

○ 000 위원

예. 그럼 왕실의 제사라든가 국가의 제사라든가 조금 포괄적인 범위를 쓰면 어떨까 싶은데요.

○ 000 위원장

용어가 조금 모호하기는 하네요. 국가제사라고 하는 범위하고 왕실제사라고 하는 범위도 사당들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도 문제가 되기는 되죠.

○ 000 위원

저는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특정 종묘와 사직에만 올리는 얼음을 보관하는 곳이라고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 000 위원

그런데 이 규정이 만기요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개를 동고와 서고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동빙고는 제사에 쓰고 서빙고는 왕실의 음식에 쓴다고 해서 종묘와 사직을 쓴 거죠.

○ 000 위원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이 꼭 종묘와 사직의 제사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서요. 그게 문제예요. 여기에 보면 사직, 종묘, 별묘의 제사 이런 식의 뒤의 사례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 000 위원장



다 포괄적으로 용어를 만들면 ‘종묘, 사직 등’ 이렇게.

○ 000 위원

예. 오히려 그게 나올 것 같은데요.

○ 000 주무관

‘종묘, 사직 등의 제사’

○ 000 위원장

‘창고 터’입니까, ‘창고터’입니까? 제목도 띄웠으니까 표석 문안도 띄워야 겠네요.

○ 000 주무관

저희가 국문 감수를 받거든요. 그러면서 띄어쓰기는 조정해드립니다.

○ 000 위원장

예.

○ 000 위원

그런데 동빙고동으로 옮겼다가 다시 옥수동으로 되돌렸다는 표현이... 되 게 짧은 기간인데 명칭을 갖고 있어서요. 이게 지금 옥수동에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 000 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동빙고동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으니까 언급해 주는 거 죠. 그 동네는 그것 때문에 이름이 생겼는데 거기에는 동빙고가 없는 거 죠.

○ 000 위원

그런데 여기는 뒤에 나오는 사한단 터랑 가깝게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사한단이 얼음이 안 얼 때 국가에서 얼게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 000 위원장

가까이 있어도 별 관계없잖아요. 그 지형 자체가 바로 거기 미타사 절 있는 데만 있고 뒤로 가면 아파트 들어서서 있는데 가장 보기 좋게 동빙고 표석하고 가깝게 사한단 터를 놔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왔는데, 모르겠습니다. 멀리 이쪽에서 산꼭대기까지 갔다가 표석 설치해놓고, 여기 도 확실한 데는 아니잖아요.

○ 000 주무관

무엇보다 지게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도로 된 표석을 옮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 000 위원

지금 그 두 표석이 나란히 있나요?

○ 000 주무관

예. 7페이지에 있는 사진처럼 나란히 있습니다.

○ 000 위원

같이 있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 000 팀장

사한단 터는 일단 달맞이봉 고개 정상부라고 추정되는 건가요?

○ 000 주무관

죄송한데 사진이 동일해서 한 장만 실었거든요. 동빙고, 사한단 전부 다 같이 이 위치로 이전할 것으로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8쪽의 종합의견에 동빙고 터와 사한단 터는 달맞이봉공원 기슭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런데 지금 사료에 보면 사한단 터가 동빙고 터보다 약간 북쪽에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사료 조사해서 이전 제안한 위치는 달맞이봉공원 쪽입니다.

○ 000 위원장

그런데 달맞이봉공원 일대에 사람들이 올라가면 거의 아무것도 없고 안



보는 데잡아요. 거기에 표석을 설치해봤자 거의 효과가 없는 거고 현재 동빙고와 사한단은 연관관계가 있는 특별한 성격을 가지니까 같이 가까이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산꼭대기에 해서 아무도 안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살곶이다리 마조단은 한양대학교 제일 꼭대기에 세워놨잖아요. 산봉우리에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단의 성격으로 보기에 맞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 생각이구요. 그런데 동빙고와 사한단 터는 같은 성격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같이 놓아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 찾아오거나 이 관계를 보더라도 '이 근처에는 빙고가 있었고 얼음을 잘 열게 하는 그런 제사를 지내는 곳이 있었다.' 이런 성격을 지키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 000 팀장

지금 달맞이봉 주변을 발굴조사를 하면 동빙고 터의 흔적이 나올까요?

○ 000 위원

돌이니까 남아있을 수도 있겠죠.

○ 000 위원장

보면 주춧돌 한두 개 혹시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세월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건물 터라고 확신하기도...

○ 000 팀장

한때 동빙고를 복원해달라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표석이 여기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 아파트 단지 만들 때 동빙고터가 파괴된 것으로 일단 추정한다고 해서 종결했던 적이 있는데 아파트 단지가 전혀 아니고 달맞이봉이라고 하면 또 다른 문제거든요.

○ 000 위원

그런데 빙고는 산에 설치하기는 어려운 게 지금 다른 지역에 있는 빙고들을 보면 평지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봉에 빙고를 설치할 수는 없고 만약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도로나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없어졌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빙고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깊게, 석재들이 많고 큰데 이전에도 000 주무관님께서 조사한



자료들을 보면 석재 등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다고 나온 상태라서 지금 산에서 발굴해서 찾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사한단 터는 8번지 뒤쪽 언덕 기슭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터 정도는 비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빙고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얼음을 산으로 올리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 000 팀장

산기슭에 위치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 000 위원

거의 강변 가까운 쪽의 가능성은 있어요.

○ 000 위원장

한강에서 접근하는 일반 통로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산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현재 오히려 미타사 쪽이 접근로가 되는 거거든요.

○ 000 주무관

그러면 일단 위치는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동빙고 터 문안만 다시, ‘조선시대 종묘, 사직 등의 제사 때 쓰던 얼음을 보관하던 창고터이다. 1504년(연산군10)에 동빙고동으로 옮겼다가 다시 옥수동(두모포)으로 되돌렸다.’ 이렇게 가면 될까요?

○ 000 위원

동빙고로 옮기기 전에 원래는 어디에 있었어요?

○ 000 위원장

옥수동이요. 지금 있는 곳이요.

○ 000 주무관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한단 터도 위치는 현재 그대로 있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두뭇개 나루터>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20/K1119/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14/53



○ 000 주무관

그다음 3번, 10쪽의 두뭇개 나루터입니다. 두뭇개 나루터는 지금 위치는 뒤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 제안 위치가 강변북로 교각 아래쪽으로 되어 있고요. 12쪽 보시면 이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고 현 위치와 이전 제안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석 옆에 성동구청에서 세운 두뭇개 나루터라고 하는 안내판도 같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표석을 이전하게 되면 안내판도 같이 바뀌어야 하는데 성동구 문화체육과에서는 약간 난색을 표하는 입장이고요. 여기가 두뭇개나루터공원이라고 지도 이름들이 나와 있어서 이런 것을 바꾸는 관계도 조금은 봐야 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문안이나 위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원 표석 문안에 ‘경상·강원도의 세곡 등 물산이 집결되었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가 세곡선이 들어올 만한 접안지가 아니어서요. 세조 때에 큰 창고가 두모포에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 000 위원

두 개 차이 중의 하나는 두뭇개는 나루는 아니거든요. 그 동네 전체 포구이고 나루는 배 타는 곳이라고 하니까 지금 있는 표석은 ‘집결되었고’ 이런 것은 전부 다 나루 얘기는 아니에요. 두모포 자체 얘기이지.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자고 해서 쓴 거죠. 그냥 ‘나루가 있던 곳’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낭설인 것은 두뭇개라는 말을 어디에 쓸 것인지. 통일하면 두모포인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두뭇개라는 말을 많이 썼으니까 버리기도 아깝고요.

○ 000 주무관

성동구에서 두뭇개라는 이름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바꾸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 000 위원

그런데 이것을 통일해야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마포도 삼개라고



쓰고 싶은 사람들이 많죠.

○ 000 위원

어차피 한자가 들어가니까 두뭇개라고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한자가 두모포지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만약에 여기에 두모포라고 적기 시작하면 나중에 되면 두뭇개라는 지명은 사람들에게는 잊혀질 수 있어서요.

○ 000 위원

그래서 그것은 통일할 필요는 있어요. 어느 동네 것은 '포'로 하고 나누어지는 거죠.

○ 000 위원장

한글로 제목은 두뭇개나루터로 하고 한자로는 두모포지라고 해서 두는 것이 낫다는 말씀인데요.

○ 000 위원

그러니까 어떤 큰 원칙을 정해야 해요. 어떤 것은 한자, 어떤 것은 한글...

○ 000 위원장

삼개나루도 마포라고 썼으니까요. 그럼 이것도 그런 식으로 가서 우리말을 살리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000 위원

사실 저는 연구자 입장으로 다 없어지고 어떤 식당 하나가 그 지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지역을 연구하는 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런데 주변이 다 없어지고 이 표석 하나 남으면 이 지역을 연구하는 데 후대 사람들에게는 또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으니까요.

○ 000 주무관

그러면 지금 문안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가고... 옆에 안내판으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문안은 수정을 안 해도 될까요?

○ 000 위원



지금 얘기는 수정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수정하더라도 그 명칭만 두뭇개 나루터이고 한자는 두모포로 두자는 얘기죠.

○ 000 주무관

예. 맞습니다. 밑에 기존 안하고 바뀌는 안하고 조금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요. 이 부분들이 만약에 안내판에서 커버가 된다면 두 개가 같이 있을 테니까 굳이 안 바뀌도 될지 해서요. 두 개가 같이 나란히 갈 겁니다. 이게 나란히 같이 있어서 옮겨도 같이 옮겨야 하고 있어도 그냥 같이 있어야 하거든요. 성동구에서 이 표석이 너무 소략하다고 바로 옆에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 000 위원장

왜냐면 이 지역이 경상·강원 세곡 등의 물산 집결지가 맞습니까?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모호한 것 같은데요. 왜냐면 그 지형상으로 봐서 거기에 무슨 큰 창고가 있어서 싼고 다시...

○ 000 위원

제가 조금 전에 000 위원님 팀에서 만든 세조실록을 보면 ‘두모포동 안에 큰 창고를 창설하고 인하여 한강 상류에서 조운하는 것으로 들여서 쌓고’ 이 표현이 있어서요.

○ 000 위원

구청 안내판 때문에 끌려가는 것은... 원칙을 세워야 할 거예요. 구청 안내판이 있으니까 우리가 따라가자는 것은 앞뒤가 바뀐 거거든요. 그 원칙대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표석은 글자 수가 100자로 되어 있고 구청은 몇 백 자로 쓰는데 어차피 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못 고친다고 하는 것은...

○ 000 팀장

자치구에서 안내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표석 옆에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종로도 그렇고 중구도 그렇고 옆에 조금 더 상세하게 그림, 사진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시민들한테 더 알리려고요. 취지는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터를 알리는 것이고 그분들



은 의미를 조금 더 부각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 000 위원장

시에서 하는 것이 글자 수가 적기 때문에 구청이나 다른 사설 기관에서 세운 것에 비해서 약하니까 딱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용은 그것을 보면 끝나니까요. 이것은 구청에서 세웠지만 서울 곳곳에 천주교제단에서 세운 순교지가 엄청 많죠. 그리고 문학회 협회에서 세운 것들, 그런 것들은 서로 협조가 안 되죠?

○ 000 팀장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홍보나 이런 것을 해야 하니까 그런 것을 저희한테 협의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 000 위원장

000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들이 좀 검토가 되어야 할 거예요.

○ 000 주무관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기존 안과 정비 예시안이 내용이 같고 앞부분에 ‘이 근방은 건너편의 압구정 방면을 가기 위한 나루터가 있던 곳으로’만 붙였기 때문에 그게 여기 안내판에 있으니까 제목이 바뀌지 않을 것이면 그냥 가도 되지 않을까 여쭙본 것이고요. 수정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결정을 해 주시면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 000 위원장

현재 문안 정비된 내용에서 두모포나루터를 두뭇개 나루터로 바꾸는 것 외에는 지금 얘기가 다 모아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 000 위원

네.

○ 000 주무관

원래 두뭇개나루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 000 위원

원 표석에 두뭇개나루터로 되어 있어서요. 그냥 원 표석을 두어도 저는 문제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옆에 성동구청 안내판이 같이 있다고 하면 그 두 개가 서로 보완되는 내용이 있어서요.

성동구청에서는 원 표석의 내용을 바꾸게 되면 싫다는 건가요?

○ 000 주무관

성동구청은 두뭇개나루터라는 제목을 바꾸지 않고 두면 좋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목은 안 바뀌니까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사실 이번에 정비하면서 너무 많은 수정 부분이 생겨서 여기 옆에 만약에 안내판이 없었으면 그냥 바꾸는데 안내판이 있으니까 그냥 가도 되지 않을까 하고 여쭙본 겁니다.

○ 000 위원

이것은 조삼모사인데 밑 줄 친 부분이 뒤로 가면 어때요? ‘경상·강원도의 세곡 등 물산이 집결되었고 경승지로도 유명하였다. 이 근방은 건너편의 압구정 방면을 가기 위한 나루가 있던 곳이다.’ 이러면 더 어색한가요?

○ 000 위원

000 주무관님 말씀은 지금 ‘표석을 안 바꿔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 000 팀장

바꾸면 이 돌 형식이 없어지고 안내판 형식으로 가게 되거든요.

○ 000 위원

처음에 바꾸자고 제안했던 것은 그 위치 자체가 여기가 아닌 것 같아서 옮기려면 글자를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쓰자는 거예요.

○ 000 위원

그러면 위치를 바꿔야 하는 거잖아요.

○ 000 위원



옮기려면 옮길 때 글자까지 바꿔야 하거든요.

○ 000 주무관

옮길 때도 사실 이 돌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해서 이 돌은 그대로 가져가고 판만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판 내용이 가는데 어쨌든 안내판도 같이 가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표석만 가고 안내판은 남아 있을 수 없는데 성동구는 이 안내판을 바꿀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옮겨서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든 따라서 올 것 같기는 한데 위치를 먼저 봐주시고 문안 봐주시면 되는데요. 사진 상으로 봤을 때는 옮기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하천 옆이라서 옮기는 게 결정이 되면 국토관리청에도 문의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여기는 공원 이름도 그렇게 아예 되어 있네요.

○ 000 주무관

예. 그래서 옮기게 되면 이 공원 이름 바꾸는 것부터 해서 제가 공원녹지과에 문의를 했더니 공원녹지과에서 일단 결정이 되면 알려달라고는 하던데 보통 공원 이름 바꾸는 것은 조금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지명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에서 결정하고 그다음에 각 시도에서 두뭇개나루터공원이 라고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서 이것을 수정하는 작업까지 같이 진행해야 하는데 여기는 마을마당 개념이래요. 큰 정식의 공원이 아니고 마을마당이라서 일단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식재를 옮길 때 수목만 조심해 주고 나머지 사항들은 추후에 알아보겠다고는 했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럼 지금 의견이 위치 이전의 방향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현 위치로 놔두는 겁니까?

○ 000 위원

저는 표석 위치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전혀 다른 위치에 가 있기 때문에 표석 위치는 바꿔야 하는데 그러면 성동구 안내판도 같이 옮겨야 하죠.



- 000 주무관
같이 옮겨야 하니까 성동구에서 조금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 000 위원
그러니까요. 두 개가 같이 옮겨가서 같은 자리에 놓으면 표석을 다시 제작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 000 주무관
그렇죠.
- 000 위원
그리고 만약에 서울시 것만 옮길 것이면 결국은 문안을 수정해야 하는 거죠.
- 000 주무관
예. 그런데 같이 안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표석을 보완하기 위한 안내판이기 때문이에요.
- 000 위원장
지금 위치 이전 제안한 위치가 큰 길 사이에 산 밑으로 해서 일반 시민들이 왕래가 많이 있는 곳인가요?
- 000 주무관
제가 현장을 직접 가보지는 않아서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산책로처럼 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 000 위원장
그런데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산 바로 밑이면 나루터 포구로서의 지형 조건은 아닌데 위치가 어떻게 이쪽에 보정이 돼서 나오니까?
- 000 위원
지금 주무관님께서 조사하신 자료는 1936년의 대경성정도라고 하는 지도



에 여기 두모포로 가는 길이 지도 안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미 이 남쪽에 강 안변으로 철로가 놓였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전혀 다른 지형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지 여기는 접안이 가능한 곳이라는 겁니다.

○ 000 위원장

포구나 나루터에 보면 대개 강줄기 두 개가 만나는 지역 가까운 데에 자리를 잡게 돼서 육개 쪽도 보면 가장 낮은 곳 쪽으로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쪽 가까이에 포구들이 형성되는데 여기는 바로 산 밑이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 000 위원

현재 지도는 그런데 옛날 지도는...

○ 000 위원장

물론 여기에 철도도 놓고 깎이고 옛날에 모래터도 있었겠지만 길 공사하느라 다 정리했겠지만...

○ 000 위원

그리고 그 앞쪽이 섬으로, 을축년 대홍수로 없어지기는 하지만 섬이어서 압구정나루에서 건너와서 섬을 지나서 가는 짧은 거리라서 사실 저도 이 위치에 큰 배가 들어왔나 싶기는 해요. 그런데 창고가 있었다고 하니까요. 게다가 지도에 표시되어 있으니까요.

○ 000 위원

그런데 포구라고 하면 지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뒤에 배후지가 있어야 하거든요. 여객도 있어야 하고 좀 이렇게 마을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이 산 옆에도 공간이 조금 있는 건가요? 이 정도면 제법 큰 포구 아닙니까. 경상·강원도에서 올라오는 물자가 있던 직결되는 곳이니깐요.

○ 000 위원

항공사진으로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되실 텐데요. 오른쪽 하단부에 뽕죽 나온 데 있잖아요. 두모교라고 쓰여 있고 숫자 '70'이라고 쓰여 있는 곳



언저리가 두모포로 비정이 되어 있는 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건너면 거기가 두모나루 있는 데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중랑천 올라가는 데거든요.

○ 000 주무관

아까 추정 위치로 한 곳은 이쪽 근처거든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조금 더가는 거네요.

○ 000 위원

네. 더 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두모교 하단에 설치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주차장쪽에 설치를 하는 게 낫겠네요.

○ 000 주무관

그러면 위치는 이쪽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두모교 주차장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추진하고 지금 현 표석을 그대로 안내판과 같이 옮길 수 있을 것 같으면 굳이 표석은 건드리지 않고 그냥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000 위원장

두모포라는 지역 자체에 대한 생각을 옥수동 쪽보다는 위쪽으로 생각해야 하겠네요. 옛날 일제강점기 때 한강지도 나왔던 지적도를 볼 수 있을까요? 저 위에 큰 물줄기가 중랑천 아니겠어요.

○ 000 위원

저 물길이 을축년 대홍수 때문에 다 바뀌어버려서 지금 저 위치인데요.

○ 000 위원장

달맞이봉공원을 놓고 동남쪽 방향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쪽으로 생각해서 옮기면 되겠네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달맞이봉공원 돌아 나와서 옥수동 방향으로 두물머리 동네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지도가 그렇다면 두모포 바로 위가 입석포라는 얘기인데요.

○ 000 위원

예. 지도상으로는 응봉산이 있었습니다. 더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응봉산해맞이명소, 거기가 입석포 위치입니다.



○ 000 위원장

돌아 나와서 중랑천하고 한강하고 만나는 그쪽에. 예.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 000 주무관

그럼 위치 이쪽으로 이전하고 제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입석포 터>

○ 000 주무관

그다음에 네 번째 입석포 터도 지금 위치 이전 문제가 나왔거든요. 문안은 문제없다고 했는데 응봉산 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밑으로 옮기자는 거거든요. 밑의 현황이 회의 자료 14쪽에 나와 있습니다.

○ 000 위원장

응봉산 위에 있으니까 내려오자? 좋죠.

○ 000 주무관

입석포 터는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회의 자료 13쪽에 있는 벽돌형처럼 되어 있는 것이라서 이것은 없애고 최근에 생기는 스테인레스 판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장

좋습니다.

○ 000 주무관

그럼 위치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자세한 위치는 협의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말씀드리겠습니다.



○ 000 위원

입석포 터 표석 문안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요. ‘수려한 경관은 조선조 문인 서거정, 강희맹 등의 예찬 시로도 유명하다.’ 이게 괜찮은 건가요?

○ 000 주무관

이것은 어차피 제작을 다시 해야 하니까 혹시 이상하시면 지금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 000 위원

딱 보기에 ‘경관은 … 시로도 알려져 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경관은 … 유명하다.’ 이러니까요.

○ 000 위원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요.

○ 000 주무관

그러면 문안은 그대로 가고 위치 이전하는 것으로만 결정하겠습니다.

○ 000 위원

‘선돌개’ 따옴표 하면 안 될까요?

○ 000 주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000 위원

그러면 앞의 입석포는 굳이 따옴표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히려 선돌개를 따옴표로 표시하고요.

□ <서활인서 터>

○ 000 주무관

예. 그다음 서활인서 터와 동활인서 터는 위치를 먼저 봐야 할지… 문안



은 조금 더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안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기는 한
데요.

○ 000 위원

지금 표석의 문안은 서활인서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막연하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동쪽에 또 하나 있고 이런 의미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
을 넣어주는 거죠.

○ 000 주무관

문안은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하고 바꾸게 되면 위치를 한 번 봐주십시
오. 위치 문제가 되게 난해하던데요. 제가 보여드린 자료 45쪽에 서활인
서 위치에 대해서 나옵니다. 위치가 아현리 372번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게 보면 아현천 오른쪽에 있는 것인데 옛날 지도에 보면 왼쪽에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고 해서 경성중학교 앞쪽인지 아니면 마포경찰서 쪽인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그런데 지도들이 조금씩 다른데요. 제일 근거가 있는 것은 아현중학교에
세웠다는 설명이 가장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지적은 지금 다 변해서 지금 상태로는 확인이 안 돼요. 1970년 지적도와
지금 지도를 겹쳐봐야 361, 372번지가 확인되는데요. 그런데 여기 361,
372번지 말고도 토지조사국 내에는 356번지부터 373번지 이 언저리 전부
다 국유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 필지라고 딱 비정하기는 어
려울 것 같은데요.

○ 000 주무관

예. 현재 설치된 것은 이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000 위원

자료집 44페이지에 보면 경성부사 2권 맨 마지막에 ‘다음해 합동 도축장
을 용강면 아현리로 이전하였다.(현재 아현리 372번지 구 활인서 터)’ 이



렇게 되어 있는 게 경성부사에 적혀 있던 내용인 건지 아니면 조사하면서 적어놓은 건지가 궁금해서요. 1권 120쪽을 참조라고 했네요. 현 고양군 아현리 372번지. 그러면 지금 372번지로 가야 할 것 같기는 한데요.

○ 000 위원

그 기록이 있고 또 하나 지도에는 지금 아현중학교 자리에 경성직업학교를 설치했는데 그것을 세울 때 활인서 자리에 세웠다고 했거든요. 대개 관청이 있던 데에 학교들을 세우니까 그것도 근거가 있는 거죠.

○ 000 위원장

물줄기가 지금 저 가운데 도로 있는 데가 물줄기잖아요. 그런데 뭐든 지도마다 도로 서쪽 방향으로 활인서 표시가 대부분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옛날 경기공대 자리, 아현중학교인가요? 거기가 일반적으로 지형조건이나 그 뒤에 학교로 이어지는 그 공간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 게 더 타당성이 있을 것 같아요.

○ 000 주무관

현재 위치가 맞다는 건가요?

○ 000 위원장

예. 지금 학교 앞에 표석 세워놨죠?

○ 000 주무관

예.

○ 000 위원장

지금 위치가 포괄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000 주무관

그러면 위치는 그대로 하고 문안만 이렇게 수정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안을 한 번 봐주십시오.

○ 000 위원장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이 자체를 가지고 무슨 민원이 들어온 것은 있습니까?

○ 000 주무관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위치는 그냥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학교 바로 앞에 있어서 지장이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니죠?

○ 000 주무관

예.

○ 000 위원

‘환자를 치료하다’보다는 요즘은 하도 ‘격리’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전염병 환자는 당연히 격리해야겠지만 앞과 좀 구별해서 ‘격리 치료하던 관청이다.’는 어때요? ‘격리 치료하던 의료기관이다.’ 이래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면에서 병원인데요. 관청? 의료기관?

그리고 저는 그다음을 앞뒤로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동활인서는 어디에 있고 서활인서는 어디에 있다는 게 그다음 동활인서 터와 똑같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서활인서 터이니까 서소문 밖에 있었고 동활인서 터는 뒤로 가고요. 뒤의 동활인서 터는 ‘동활인서 터’ 글자 순서를 그대로 앞에 두고요. ‘관청’은 조금 그렇고요.

○ 000 위원

저는 관청이라는 것을 남기고 싶은 게 왜냐면 국가적으로 국민들의 보건에 관해서 조선시대에도 신경 쓰고 있었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 000 위원

아니면 ‘... 국립의료기관이다.’

○ 000 위원

그래도 그 시절의 표현들을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청이라는 말이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쓰였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의 국립의료기관보다는...

○ 000 주무관

그러면 문안은 ‘활인서는 조선시대 도성 내의 치료받을 여력이 없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전염병 환자를 격리 치료하기 위해 설치한 관청이다. 서활인서는 서소문 밖에 있었고 동활인서는 동소문 밖에 있었다. 1882년(고종 19) 폐지되었다.’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 000 위원

죄송합니다만, ‘치료받을 여력이 없는 사람들을 구제하고’가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고... 치료받을 여력이 없는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결국 치료하는 것 아니에요? 어떤가요? 거기에서 다른 빈민구제의 성격도 있었는지.

○ 000 위원

그런 의미죠.

○ 000 위원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면서 치료해 준다는 의미 아니에요?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해 준다는 의미이죠.

○ 000 위원

가난한 사람들 구제를 한 곳은 혜민서가 따로 있잖아요.

○ 000 위원

그렇죠.

○ 000 위원

여기 세종실록지리지에 서활인서 처음에 설명 나올 때 그랬어요. ‘서울 안에 병들고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은 모두 이곳에 모아놓고 죽이나 밥을 주면서 옷과 이불도 주어 보호하고 나중에 죽는 이가 있으면 잘 묻어준다.’고 해서 그런 개념을 전부 넣은 거죠.



○ 000 위원

포함되어 있네요. 그런데 특히 여기는 가난하지만 병까지 든 사람을 구제한다. 그냥 이렇게 하시죠.

○ 000 위원장

그냥 갑시다.

○ 000 주무관

그럼 격리 치료한다는 것으로 하고 서활인서를 먼저 넣는 것으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 <동활인서 터>

○ 000 주무관

다음 번 동활인서 터입니다. 동활인서 터도 문안은 이대로 가고 여기 위치를 조금 봐야 하는데요.

○ 000 위원장

문헌 고증한 것이 위치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 000 위원

옛날 지도라서 축척이 워낙... 그리고 산 밑에 있느냐 산 옆에 있느냐 그 정도 차이거든요.

○ 000 주무관

제가 길들을 로드맵으로 찍으려고 했는데 굉장히 좁더라고요. 학교 자체는 들어가지지는 않는데 하여간 표석을 설치할 만한 위치가 있을지 현장에 가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장

길 쪽이 어때요? 성북촌 복개한 바로 길 쪽으로 내려와서. 그래야 어떤 의미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언덕바지보다는 천변 옆에 있어서 도로가 옆



이라 접근하기도 쉽고요. 지도상으로 봐도 미아리고개 넘어가는 길 쪽이 아니라 성북동 올라가는 길 쪽에 표시되어 있으니 그쪽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 000 주무관

문안은 이것 그대로 하고 위치는 옮기겠습니다.

□ <인명원 터>

○ 000 주무관

다음 일곱 번째 인명원 터입니다. 인명원 터는 문안을 변경하자는 거거든요. 한 번 보시고 의논해 주십시오.

○ 000 위원

이런 경우에 명칭은 마지막 것으로 하느냐. 그 기준이 문제가 되는 거죠.

○ 000 위원

어떤 게 더 많이 나올까요?

○ 000 위원

보통은 마지막에 더 상승되는 게 많으니까 마지막 것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강등된 거예요. 이런 것도 원칙을 이때 세우는 게 낫죠.

○ 000 위원

선생님 말씀대로 처음 것이냐 마지막 것이냐 하는 것도 있고. 어느 게 더 널리 인지되어서 사용되었느냐. 여러 기준이 있을 테니까 상황에 따라서. 저는 원빈 묘가 더 좋을 것 같아요.

○ 000 위원

그리고 인명원은 '이게 누구 묘이지?'하고 한 번 더 들어가야 해요. 두 단계 들어가느냐 아니면 한 단계 들어가느냐 이런 차이는 있죠.



○ 000 위원

인명원은 어차피 설명이 들어가니까 원빈묘에 저도 동의합니다.

○ 000 위원장

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빈에 해당되는 무덤으로 원이라는 격에 안 맞습니다. 홍국영이 권력자의 참칭으로 붙인 이름이지 그 격에 맞는 용어가 아니니까 원빈묘가 맞는 말입니다.

○ 000 주무관

그럼 회의 자료 19쪽에 있는 원빈묘 터 문안 한 번 보시고 이대로 갈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존 표석 돌에 판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한 번 봐주십시오.

○ 000 위원

원빈의 이런 일생을 자세하게 적을 필요가 있을까요?

○ 000 위원

그렇죠. 이 정도면 굉장히 자세하죠.

○ 000 위원

‘궁원의 호칭이 예에 맞지 않는다 하여’ 그것은 빼도 돼요.

○ 000 위원

그리고 동빙고 터 할 때는 동빙고는 무엇 무엇이다. 이렇게 안 나가고 아까 7쪽에 나왔듯이 동빙고는 이름이기 때문에 ‘동빙고는’이라는 주어는 생략됐거든요. 그래서 그 뒤의 ‘입석포 터는’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맨 앞에 동빙고에서는 동빙고가 빠지고 서술되고 여기 원빈묘는 ‘원빈묘는’이 필요한가. 앞에 것을 보니까 그 원칙이 이 확인서는 필요할 것 같지만 입석포 터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것도 원칙을 정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표지석명과 일치될 경우는 굳이 주어를 쓸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 000 위원



문장 마지막에 ‘귀인·숙의 묘역’ 이것을 요즘 합쳐서 ‘후궁 묘역’이라고 지칭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국가적으로 아예 그렇게 부르고 있어서요.

○ 000 위원장

공식명칭이 후궁 묘역이라고 바뀌었나요?

○ 000 위원

네.

○ 000 위원장

그것은 확인을 한 번 하세요.

○ 000 주무관

네. 그럼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조의 후궁인 원빈 홍씨의 묘소이다. 원빈은 세도가 홍국영의 누이로 1779년(정조 3년) 14세의 나이로 병사하였다. 처음 인명원으로 조성되었으나 홍국영의 사후 원빈묘로 강등되었다. 1950년 서삼릉 내의 후궁 묘역으로 이장되었다.’ 후궁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 000 위원

지금 보니까 후궁 묘역이라고 쓰네요.

○ 000 주무관

그럼 후궁 묘역으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 <둔촌 이집 선생 집터>

○ 000 주무관

여덟 번째 둔촌 이집 선생 집터입니다. 이쪽에서 살았는지 정확하지 않다고 해서 한 번 의논해보자는 것인데요. 존치 여부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20/K1119/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33/53

Email : sokgisa88@daum.net



○ 000 위원장

여기는 모호할 뿐만 아니라 전혀 근거가 없네요.

○ 000 위원

그렇죠.

○ 000 위원장

그렇다고 어디 마땅하게 갈 만한 데도 없고요. 둔촌동이라는 동명 때문에 그런 의미는 있는데요.

○ 000 위원

그런데 둔촌은 이 사람 때문에 생긴 명칭이 아니잖아요.

○ 000 위원장

예. 그런데 일자산에 가면 둔촌의 토굴이 있거든요. 둔골이라고 해서 일자산 중간쯤에 가면 굴이 있어요. 만약에 간다면 그쪽으로 옮길 수도 있을 텐데 거기는 굴 자체를 설명하는 게 조그만 안내문이 있는데 과연 이게 타당한 건지. 강동변을 가면서 이 표석을 바라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 000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설치가 된 건가요?

○ 000 위원장

거기가 둔촌동하고 경계지역이고 둔촌동이 시작되는 쪽이니깐 길가에 세운 것 같아요.

○ 000 위원

박세채 것과 똑같이 동네 이름...

○ 000 위원

보통은 지명을 따라서 자기 아호를 결정하는 것을 잘 몰랐던 시절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지명이 생겨났다고 오해가 된 거죠.



○ 000 주무관

존치를 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토굴 있는 데로 옮길지 아니면 철거해야 할지 지금 세 가지 중에 결정해야 하는 거죠?

○ 000 위원장

그냥 놔두느냐, 아니면 없애버리느냐, 아니면 굴 있는 데로 옮기느냐? 옮긴다면 문안을 좀 바꿔야 하겠고요.

○ 000 위원

저는 없애는 데 찬성합니다.

○ 000 위원

그런데 이것을 없애면 서울시가 곤란할 것 같아요.

○ 000 위원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아까 박세채 정승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굳이 선생이라는 말을 써야 해요?

○ 000 위원

그것도 빼야 하고 둔촌도 빼야 하죠.

○ 000 위원

둔촌은 둔촌하고 연결되니까 거기까지는 봐준다고 하더라도 누구 집터 이랬을 때 선생, 정승,

○ 000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철거 쪽에 동의합니다. 광주 이씨 집성촌 이렇게 가면 그런 데가 또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근거할 만한 자료라든가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쭙본 거예요. 이게 왜 이 자리에 들어갔는지. 설치할 때는 뭔가 근거가 있어서 이 자리에, 아까 동명연혁고에 나와 있는 박세채는 소동루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설립된 것처럼 둔촌 이집 선생 집터에는 어떤 것이라도 근거가 조금 있어서 여기



에 표석을 설치했을 텐데 그게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지금 상황에는 어떤 것도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 000 위원장

암사동 그쪽에 구암서원 터 표석이 있죠?

○ 000 팀장

있었는데 도로변에 정자 하나 있고요. 그런데 없어졌다고 해서요.

○ 000 주무관

뭐가 안 보인다고 하는데 제가 현장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리해 주신 분이 돌았는데 못 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000 위원장

전에는 있었는데요.

○ 000 주무관

저희 스마트서울맵에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는 어떤지 잘 몰라서 한 번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장

그것을 일부러 캐서 버리지는 않았을 텐데요. 산속에 묻혀 있는 것 아닌가요?

○ 000 주무관

그분이 잘못 찾아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현장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 000 위원장

구암사원이 이집 선생을 모시는 서원이거든요.

○ 000 위원

거기는 구암정이라는 정자도 지어놨네요.



○ 000 위원장

예. 정자도 있고 조두비인가 하는 비가 하나 세워져 있었어요.

○ 000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주신 것에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네요.

○ 000 위원

그런데 여기 살았다는 기록은 없네요. 경상도 영천에 살았다고 했는데.

○ 000 위원장

이집이 신돈한테 쫓겨서 숨어 살았던 동네라고 해서 둔촌이거든요.

○ 000 위원

이항복 백사집에 보면 ‘아버지를 등에 업고 남쪽으로 영천까지 도망가 살면서 인하여 둔촌이라 자호하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 자체로만 보면 이 둔촌동에는 안 산 거잖아요. 자기가 은둔해서 산 곳이기 때문에 둔촌이라고 했는데요. 영천까지 갔는데 그럼 여기 살았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처자를 이끌고서 남쪽 경상도로 도주해서 살았다. 둔촌에 살았다는 표현이 다른 데에 있나요? 안 나오는데요. 이 둔촌동에 사는 게 아니에요.

○ 000 위원

그 지역이 이 사람들의 세거지였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원래 여기서 살다가 그런 문제가 생기자 경상도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왔다고 보여요.

○ 000 위원

언제?

○ 000 위원

아직 그 기록이 없지만 경상도로 갔다가 내내 거기서만 살았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 000 위원

그럼 신돈이 죽자 다시 올라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 000 위원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 000 위원

그때는 둔할 필요가 없는데 왜 둔촌에 살았죠?

○ 000 위원장

광주 이씨 세거지이고 이극배 신도비가 바로 거기 있고 그 일대가 광주 이씨 묘역이에요. 강동구 그쪽이.

○ 000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살았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 000 위원

그런데 이 기록으로는 000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둔촌이 여기에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도망가 살면서 인하여 둔촌이라 자호하였다고 하니까요.

○ 000 위원장

그 문장만 생각하면 영천이 둔촌이고 여기도 둔촌이고 넓게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 000 위원

그리고 어쨌든 신돈 때문에 도망가고 숨었다는 게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됐네요. 그것 자체는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면서 그런 문제들도 있고 이렇게 기억이 되어서 이 사람을 기념하는 것 자체는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 000 위원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20/K1119/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38/53

Email : sokgisa88@daum.net



그것도 중요한데 이 사람이 신돈에게 핍박을 받기 전에 둔촌에 살았을 가능성이 있다면 저는 찬성.

○ 000 위원

그래 보여요.

○ 000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 000 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 000 위원

그렇게 잘 나간 사람이 왜 이리 먼 데서 살아요. 서울도 아닌데.

○ 000 주무관

77쪽의 둔촌기를 보면 ‘도망쳐 숨은 것이 나에게 덕을 끼쳐 주었으니, 장차 이 몸이 다할 때까지 나로서는 잊을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쳐하는 곳을 둔촌이라고 이름 지었으니 이는 도망쳐 숨은 것을 덕스럽게’ 그러니까 예전에 이것을 보면서 도망쳐 숨었던 것이 자기한테는 굉장히,

○ 000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경상도 영천이에요.

○ 000 주무관

그런데 어쨌든 내가 거쳐하는 곳에 온 다음에 거처를 둔촌으로 하면서 자기가 예전에 도망쳤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잊지 않은 게 아닌가 생각을 했거든요.

○ 000 위원

다시 와서 이 사람이 서울에 살아야지 둔촌이 지금이 서울이지 사대문 밖에서도 한참 떨어진 곳인데요. 그렇지 않겠어요? 과거까지 합격하고 당대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20/K1119/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39/53

Email : sokgisa88@daum.net



명문이고 최고 권력자인 신돈의 정적인데요.

○ 000 위원

이 지역이 광주 이씨의 세거지라면,

○ 000 위원

집성촌이기는 한데 집성촌이라도 반드시 여기에 살았다는,

○ 000 위원

그렇지만 대개는 집을 또 거기에 두고 서울에 거처를 마련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람이 살았던 곳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000 위원

그러니까 이집이 여기서 태어났다면 얘기가 되는 거죠.

○ 000 위원장

영천 지역이 신돈한테 쫓겨서 잠시 피난을 갔다 온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꼭 그쪽에서만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 000 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000 위원

그 개연성은 높는데 집성촌이라고 해서 과연 거기에서 살았을까? 그것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 000 위원

그럴 수도 있지만 오래 전이지만 표석이 있는 것 자체가 그 개연성들은 조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는 해요.

○ 000 위원장

그리고 저는 계속 의문시 해왔던 것은 이 갯벌 위에는 아무것도 없던 데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20/K1119/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40/53

Email : sokgisa88@daum.net



에 한 것이기 때문에 의문이 있었고 단지 그 일자산 밑에 굴이 있어서 그 것이 일단 광주 지역이고 이 인근에서 살다가 피신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개연성은 있다고 이해를 해왔거든요.

○ 000 위원

그 굴이 이 사람과 연관 지어서 설명이 되기도 한다는 말씀입니까?

○ 000 위원

저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영천이 잠시라도 숨었던 곳이지 탄압을 안 받았을 경우는 굴이 굴에 들어가서 살 필요가 없잖아요.

○ 000 위원

그러니까요. 굴에 들어갈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 000 위원

그렇게 자꾸 연결 지으면 안 돼요. 오히려 옮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오히려 실제 설화가 되는 거죠.

○ 000 위원

그러니까요.

○ 000 위원장

저 멀리까지 갔는데 왜 숨어살았는지, 햇빛 들어오는 집에 살지. 영천도 그렇고 여기도 의미상으로 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 의미를 떠나서 아까 세 개 안으로 얘기한 것. 그대로 두는 것, 없애는 것, 일자산 밑에 두는 것. 지금 의견을 세 개 중의 하나를 먼저 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000 위원

성남에 이집의 묘역이 있잖아요. 또 아까 말씀하신 구암서원도 이 근처에 있어서 어쨌든 이집이라는 사람의 근거지는 이 언저리인 것은 분명한데 왜 꼭 이 터여야 하는가 하는 근거가 표석이 세워졌을 때 그것을 찾을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게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데로 옮겨가는 것도 문제이고 없애는 것도 문제라면 이 논의를 다음으로 미루고 현재는 그냥 유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 000 위원장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무 문제도 없는 표석이거든요.

○ 000 위원

그런데 현재 이것으로 한다면 마치 이집 때문에 여기 지명이 둔촌이 된 것처럼 오해를 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커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나중에 고치려면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요.

□ <삼전 나루터>

○ 000 주무관

삼전 나루터인데요. 여기도 위치 이전입니다. 회의 자료 24쪽에 보면 1번 출구나 4번 출구로 옮기면 좋겠다고 했는데 자료집이랑 같이 봐주시고요. 여기도 앞쪽에 자전거 거치대가 있고 해서 옮길 만한 위치가 있는지는 결정되면 현장을 가서 다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장

삼전도의 정확한 지번으로 추정할 만한 데가 그림에 나오니까? 현실적인 감각으로 봐서는 원래 한강 물줄기인 동·서호 연못이 지금 동쪽 방향에 있는 데에는 송파진, 송파나루터라는 표석이 있으니 현재 서쪽 끝에 삼전 나루터 표석을 세운 것 같아요. 동호, 서호 끝으로. 현재 표석 위치가 서호 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표석 이전 제안이 나와 있는 곳은 삼전역인데 여기가 주택지로 완전히 들어온 곳인데요. 지적원도에 보면 서호에서 남서쪽 950미터 정도 떨어진 삼전역 1, 4번 출구 일대로 추정된다고 검토되어서 나왔는데요.

○ 000 위원

삼전도비와는 가까워요? 거기하고도 맞아야 할 것 같아요.



○ 000 팀장

삼전도비는 지금 롯데 뒤쪽으로 옮겼습니다. 원래는 남쪽에 있던 것인데요.

○ 000 위원

그것과도 좀 아귀가 맞아야 할 것 같아요. 청 태종에게 항복한 곳이기도 하다고 했는데 비는 저쪽에 가 있고 터는 이쪽에 가 있고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서 항복한 거야?’ 비가 항복한 곳에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을 텐데요.

○ 000 팀장

삼전도비 옮기는 과정에서 장소 문제 때문에 많은 논의를 했거든요.

○ 000 위원

아니, 그런데 설명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 사람들은 삼전도비가 있는 곳이 치욕적으로 항복한 곳이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도 삼전 나루를 쓰면서 삼전도진이다. 여기에서 항복했다. 이렇게 가면 일반인들이 볼 때는 ‘도대체 어디서 항복했다는 것이냐?’ 이런 의구심이 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000 위원

‘항복한 곳’을 빼주면 어때요?

○ 000 위원

예. 차라리 그것을 빼든가요. 여기가 나루라는 것을 설명해주자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항복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죠.

○ 000 팀장

예전에 여기에 있던 것인데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 000 주무관

현재 삼전 나루터 문구는 ‘경기도 광주, 여주 일대와 서울을 이어주던 유



명한 나루터'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 000 위원장

원래 호수 있는 데로 해서 주택가 있는 데로 해서 아시아선수촌아파트 뒤 쪽으로 한강이 그리 흘렀기 때문에 그 물이 있던 데가 전부 택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치상으로는 이쪽 강가로 박서는 지금 삼전도비 있는 데와는 큰 차이는 없어요.

○ 000 위원

그럼 송파 나루터 표석은 어디에 있어요?

○ 000 위원장

저쪽 동호에 있어요.

○ 000 위원

그러면 석촌호수가 옛날 물길 라인에 따라서 그 석촌호수가 만들어진 거예요?

○ 000 위원장

예. 그 호수 물줄기를 생각하면서 그나마 생각해서 거기에 지은 거예요. 송파 나루도 저기라고 입증할 수 없어요. 물줄기 옆이니까 거기에 만든 거라고요. 왜냐면 물줄기가 앞쪽으로 뺏으니까요. 한강의 본류라는 것을 의식해서 나루터 표석을 거기에 세운 거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생각하면 그냥 놔둬도 되는데 여기 나온 대로 원위치를 찾는다고 하면 지금 주택지역이 다 물줄기였으니까 거기까지 갈 수도 있죠.

○ 000 위원

그런데 그냥 뒤편도 큰 문제가 없기는 하다고요?

○ 000 위원

그런데 거리도 멀고 또 하나는 삼전도가 유명한 것은 나루가 유명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표석에 넣어줘야 의미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나루는 거의 모르죠.



○ 000 위원

그렇기는 한데 위치가 너무 떨어지면...

○ 000 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옮겨서 문장을 바꾸자는 거죠.

○ 000 위원

그런데 삼전도 표석이 만약에 두 개가 나란히 그냥 유지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 000 위원

그렇죠. 오히려 붙어 있으면 여기로 와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한 번 봐둔 것은 알 테니까요. 포괄적인 의미로 보면 맞지만.

○ 000 위원장

분석된 의견으로 봐서는 일리가 있는 얘기이고요. 거기가 삼전리와 부리도를 잇는 나루터였다고 하니까 현재 옮긴다고 예정한 곳이 거기가 바로 아시아공원 있는 부리도 쪽으로 연결되니까 의미는 있는데 현재 지형상 조건이나 말씀하신 대로 감각적으로 삼전도비는 거기에 있고 주택가의 나루터와 표석은 보이지도 않고 삼전역은 안쪽에 있으니까 그것과 연결해서 종합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 000 위원

이것도 보류하면 안 될까요? 이번에 결정해야 해요?

○ 000 주무관

보류해도 상관없습니다.

○ 000 위원장

이것은 결정하죠.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 그것만 결정하면 되잖아요.

○ 000 주무관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20/K1119/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45/53

Email : sokgisa88@daum.net



저희가 봤을 때는 삼전도비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 000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잘 모르니까 지적한 건데 그런데 틀린 곳에 현재 모양새를 위해서 놔두는 것은 오히려 우리 위원회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 000 팀장

비를 옮긴 데가 정확하게 삼전 나루터가 아니라는 거죠? 호수 중간으로 가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 000 위원

네. 중간에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 000 위원장

그것도 처음에 회의할 때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왕에 이 삼전도비를 옮긴다면 그쪽이 아니라 더 남쪽으로 해서 이쪽에 세워놔야 하지 한강 본류라는데 본류의 북쪽에 세우면,

○ 000 팀장

그게 을축년 홍수 때 드러났던 곳을 다시 찾아서 세운 것 아닌가요?

○ 000 위원장

청 태종이 한강 건너온 뒤에 항복한 거니까요. 남한산성 쪽에서 내려와서 한 건데 지금 위치를 봐서 한강 본류라고 하면 한강 북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견이 안 맞는다고 해서 그때 의결했는데 그래도 지도를 오버랩하고 해서 강 한 가운데가 가깝다. 그리고 롯데월드하고 중국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많이 온다. 그래서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도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결국은 정해졌는데요.

○ 000 팀장

지적도가 1906년에 만든 게 있거든요. 그것을 현재 지도와 오버랩 시켜서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 000 주무관

보류하고 다음번에 진행하겠습니다.

○ 000 위원

그리고 아까 둔촌 그것을 그냥 두는 것으로 해서 끝났는데 제일 큰 문제는 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같은 것을 사료로 가장 많이 본 것인데요. 거기에 보면 둔촌이라는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와요. 고려 때는 개성에서 벼슬을 했고 영천으로 돌아났고 다시 벼슬을 하다가 죽기 몇 년 전에 여주 천영현에 은퇴해서 시를 짓고 평생 살았다.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둔촌동 하나도 안 나오는 것을, 그 사람 호가 둔촌이고 둔촌에 숨어 살겠다는 것이 이 동네라는 뜻은 아니에요. 토굴 같은 것은 나중에 붙이는 전설이죠. 그러니까 둔촌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갖다 붙인 거고 이것을 그냥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이번 기회에 이것은 한 번 더 근거를 찾는다고 숙제를 주는 게 낫지 그냥 둔다는 것은 고정이 되는 거죠.

○ 000 주무관

아까 존치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 000 위원

존치하면 그냥 지나가는 거죠.

○ 000 팀장

존치할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철거하고 나중에 자료가 나오면 그 위치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냥 철거하는 것으로. 의미가 없는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는 뜻이죠.

○ 000 위원장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죠. 둔촌동이라는 이름도 언제 정해졌는가. 동명이 등장한 것도 아까 말씀하신 연원하고- 이집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의 동 이름을 붙일 때 둔촌동이라고 붙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설화 상으로 있는 것들에 대한 문제, 그런데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은 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 000 주무관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 조사를 웬만하면 다 하셨는데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게 된 거잖아요.

○ 000 위원

위원회에서 문제가 됐으니까 한 번 더 다른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 000 위원

성남 묘역과 관련해서 성남에서 정의한 디지털사전에는 아까 개경으로 돌아와 판전교시사에 임명되었으나 곧 사직하고 이름과 호를 집과 둔촌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이집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호를 둔촌으로 바꾼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주 천영현에서 자연을 벗 삼아 시와 학문에 전념했다. 그 묘역이 있어서 관련된 유구를 다 검토한 다음에 이런 식의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름을 집, 호를 둔촌으로 바꿨다는 이 표현이 혹시 오해된 것은 아닐까. 집이 둔촌이라는 것으로. 이름을 집으로 바꾼 건데. 그 부분은 조금 더 검증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전국에 있는 비지정문화재 전수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원래 있던 것을 없애는 일이 참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려고 하면 진짜 그야말로 명분을 만들고 근거를 대야 없앨 수 있으니까 일단은 없앨 때까지는 보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이미 그게 세워진 때부터 주변사람들한테 그게 역사적인 존재물로 인식이 되는 것이라서 쉽지가 않아요. 없앨 때는 확실한 명분을 뒤야 해요.

○ 000 위원

명분은 있는 거죠. 잘못 되었다.

○ 000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서 근거를 갖고 오면 그때 얘기하면 되죠. 없앤다면 뭔가 민원이 들어올 거예요.

○ 000 주무관



그러면 일단 먼저 없애놓고, 완전히 없애지 않고 이것을 중량물재생센터로 이동을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철거가 되는 상태거든요. 이후에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다시 조사하는 것으로 할까요?

○ 000 위원

그러니까 표석을 설치할 때 자료를 갖고 오고 우리가 검토하잖아요. 갖고 오는 것을 검토하는 거죠.

○ 000 위원장

그러면 보류해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합시다.

○ 000 주무관

그러면 일단 제자리에 두고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방학호진 터>

○ 000 주무관

그다음에 방학호진 터입니다. 방학호진 터 표석 문안 바꾸는 게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근거가 없다고 해서요. 한 번 봐주십시오.

○ 000 위원장

방학호진이라고 하니까 현재 위치가 우선 길가 옆에 공원식으로 되어 있는 곳에 설치한 거죠? 샛강 쪽으로 나가기에는 좋는데 그쪽으로 나가면 완전 길이고 사람들이 볼 기회가 없죠.

이것도 종합 의견에 ‘우선 현행대로 두되, 추후 사료가 발견되면 정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넣으셨는데 이것도 지금 그런 식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봐도 그 전에는 샛강 바로 옆에 신길동에서 샛강으로 빠지다 보면 거기에 큰 언덕바지가 있고 바위가 있어서 그 사이에 느티나무 같은 것이 휘어져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무마저 아마 다 죽어서 없거나 길을 넓히거나 하면서 없었을 거예요, 바위 있던 것도.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언덕바지 길 옆으로 표석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 000 위원

일단 이것도 놔두죠.

○ 000 위원장

예. 종합의견 따라서 보류하죠.

○ 000 주무관

위치는 옮기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 문구도 그냥 둘까요?

○ 000 위원

문안도 지금에서야 호수도 없고 그렇지만 이름에 ‘학’자가 붙은 것을 보면 이런 전설이라든가 구전으로 있던 거죠. 그런데 위치가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규명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문구 자체를 굳이 또… 일단은 그냥 놔두죠.

○ 000 위원장

내용상으로는 문제가 경기도 시흥 일대와 서울을 이어주었다는 얘기니까 조선시대 같으면 맞는 말인데 지금은 영등포와 여의도를 잇는 거거든요. 옛 이름으로 그냥 놔두는 것으로 하고요.

○ 000 주무관

그러면 존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여기소 터>

○ 000 주무관

마지막 여기서 터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 같습니다. 한자가 ‘汝’에 ‘其’가 아니라 ‘女’에 ‘妓’로 문헌에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자료집을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000 위원



문헌에는 전부 다 ‘妓’인데 문법으로 조금 이상한 이름으로 쓴 겁니다.

○ 000 위원

고쳐야 하는 게 맞는 겁니까?

○ 000 위원

100년 전의 지도에도 여기라고 ‘妓’로 나오죠.

○ 000 위원장

어차피 설화이고 내시 묘역 있는 그 길을 가다 보면 여기서이 있는데 북한지에 나오는 여기서으로 쓰는 것으로 가는 게 어때요, 지금 문안에 나온 것처럼?

○ 000 위원

고쳐야 하는 거죠? 이게 정확하다는 거잖아요.

○ 000 위원장

네.

○ 000 위원

정확합니다.

○ 000 위원

그럼 고쳐야죠.

○ 000 위원

기록에 여기서이라는 것은 하나도 안 나와요?

○ 000 위원

못이니까 ‘淵’을 쓰죠.

○ 000 위원장

소자도 이게 의미상으로 보면 ‘沼’를 써야 맞는데요.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20/K1119/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51/53

Email : sokgisa88@daum.net



○ 000 위원

일제강점기 지도에는 다 ‘所’로 되어 있는데요. 앞은 ‘女妓’인데 뒤에는 ‘所’로 되어 있어요.

○ 000 위원

그래서 수정문구에는 ‘所’로 되어 있어요. 하려면 이렇게 하자는 거죠.

○ 000 위원장

정비 예시대로 가고 예시 문안에 여기담, 여기연 한자하고 한문하고 달라요. 그것을 맞춰 쓰세요.

○ 000 주무관

그러면 ‘女妓所’를 써서 정비 문안에 있는 것으로 하면 되는 건가요? 여기담, 여기연 이것만 바꾸면 되는 거죠?

○ 000 위원

예. 여기담과 여기연 한자표기만 잘못 되어 있어요. 연을 담으로 쓰고 담을 연으로 썼으니까요.

○ 000 주무관

그러면 여기서 터이고 한자는 ‘女妓所’를 써서 여기서 하고 내용은 그대로 ‘이 못에 몸을 던졌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당시에는 여기연(女妓淵), 여기담(女妓潭)으로 불리었다.’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웬만큼 2019년 사료 조사한 것을 다 보기는 했는데 제가 안 올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큰 바위, 거석 같은 곳에 새겨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철거하기 힘들어서 그런 것은 올리지 않았고 그다음에 연도가 84년인데 83년. 이런 식으로 딱 한 글자만 바꿔야 하는 것이 있어서요. 그런 것은 국도극장 터가 그 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몇 개는 제외를 했고요. 지금 사실 저희가 한 것은 많은데 진행되는 상황에서 여건이 안 좋아서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산상의 문제로 정비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듯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진행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고 내년 3월에 저희 회의할 때는 올해 정비했던 것들



을 정리해서 종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럼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산회)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20/K1119/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53/53

Email : sokgisa88@daum.net

